



이날 투표장 곳곳에서 한인교회 버스들을 볼 수 있었다.

## “한인타운 우리가 지키자” 교회들도 한마음 주민의회 분리안 놓고 투표... 한인들 적극 참여

월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절반 이상을 리틀방글라데시 주민의회로 분리하겠다는 분리안 투표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투표는 나성열린문교회와 하바드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나뉘어서 실시됐으며 두 군데 모두 투표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이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 투표자들의 절대다수는 한인들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4시간 이상을 기다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오후 2시 10분이 되었을 때 나성열린문교회 쪽은 두 블럭 이상 줄이 이어졌고 하바드초등학교 쪽도 한 블럭 반 이상 줄이 이어졌다. 이 줄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계속됐고 하바드초등학교 쪽은 오후 8시까지 줄을 썼지만 투표하지 못한 한인들 수백 명이 끝까지 질서를 지키며 투표에 참여했다. 한인단체들은 한인들의 투표를 약 1만5천 표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의회 분리안은 가별게 부

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우편 투표를 감안하더라도 현장 투표자들의 절대다수가 한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편 투표 등록 당시부터 한인타운 지키기에 앞장섰던 한인 교회들은 이날 성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교회 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나성순복음교회, 동부장로교회, 만나교회 등 교회 로고가 새겨진 밴과 버스들을 투표 장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한인 기업 중에는 뉴스타부동산이 한인 마켓에서부터 투표 장소까지 한인들의 교통편을 책임졌다.

한편, 나성열린문교회 앞에서는 순식간에 차량이 몰려들자 박헌성 담임목사가 직접 나와서 교통안내를 했으며 송정명 목사, 이성우 목사 등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직접 투표장을 찾았다. 하바드초등학교 쪽에서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등 한인 목회자들도 투표 행렬에 참여하며 성도들을 격려했다. 김준형 기자



나성열린문교회 앞에서 만난 교계 지도자들. (왼쪽 두 번째부터) 김영 전 남가주장로협회장, 송정명 목사, 이성우 목사, 박헌성 목사



오병순, 정미애, 박금주 권사, 강선구 안수집사 부부, 이동진 담임목사 부부

## 성화장로교회 주일예배 때 임직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 (담임 이동진 목사)가 지난 17일 주일예배 때 임직식을 했다.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주일예배에 거행하며 이동진 목사는 “따로 임직식을 갖기보다 온 성도가 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다”며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강선구 안수집사는 1.5세로 다음 세대와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식에서 이동진 목사는 “섬김과 봉사의 삶(민4:46-49)”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봉사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열정과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고 설교했다. 이어서 강영석 원로목사와 최연기 은퇴목사가 권면을 하고 소프라노 양유진의 축하와 각 목장과 가족들의 축하순서를 가졌다. 한편, 임직식에 이어 강영석 원로목사의 신간 칼럼 시리즈 출간을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다.

## 작은 교회 청년들 다 모여라!

찬양문화사역단체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작은 교회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를 개최한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자체적인 수련회를 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작은 교회를 찾아가 찬양 집회를 무료로 개최하는 등 작은 교회를 섬겨온 원하트는 이런 작은 교회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청년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게 됐다. 강사로는 토렌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를 비롯해 변용진 목사(갯스미지), 김섭리 목사, 오윤태 목사, 김도일 목사, 종유석 전도사 등이 나서게 된다. 피터 박 목사가 이끄는 중보기도회와 찬양 사역자 레베카 황 간사의 찬양 집회도

주목된다. 원하트 측은 이번 수련회에서 만남 카페 시간을 만들어 미혼 청년 남녀들이 신앙적 고민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특별히 준비했다. 피터 박 목사는 “일회성 집회에 그치지 않고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각 교회를 섬기면서 연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련회는 레이크뷰테라스에 있는 YWAM 수련장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100불이지만 주최측에서 매칭 펀드 형식으로 60불을 후원해, 참가자는 40불만 내면 된다. 박 목사는 “대학생이 된 후, 믿음을 버리는 청년들을 예배자로 다시 세우는 일에 뜻을 모은 후원자와 교회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213-347-5080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시온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Brake Service	전기계통
Tune-Ups	10K Service
Computer Diagnostic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TURN TO ME...”**

**JOINT YOUTH RETREAT**  
**JULY 16(Mon) – 18(Wed)**  
**@ FULL GOSPEL PRAYER MOUNTAIN**

"Turn to me and be saved, all you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sa. 45:22)

**제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 기간 2018년 7월 16일(월) - 18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등부, 고등부 학생 (6-12학년)
- 모집 6월 24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신청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나성순복음교회 국제 금식기도원 Tel. 951-928-4415 lafgcd@gmail.com

Scan me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거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본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엘리야 김 총장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목회란 사랑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학교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의 인도로 OC교협 직전회장 이호우 목사의 대표기도, 남가주여성목사회 안선신 회장의 성경봉독, 유에스터 목사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박사원장 고영준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옳다(행4:18-19)"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남가주목사회 수석부회장 김관진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위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남가주한인목사회 샘신 회장, OC목사회 남상국 회장,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 연합회 엄규서 회장, 미기총 서부지역회 민승기 회장, 솔로몬대 백지영 총장이 축사, 개혁장로회 증경총회장 김민철 목사, 유나이티드 대학교 권다니엘 총장이 각각 권면사를 전한 후, 후원이사장 전재학 목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어 정지수 장로가 졸업생 대표로 인사하고 모든 순서는 류당열 박사(대한신학교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1부 졸업예배와 2부 학위수여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송인 교수

학위수여식은 최선영 교수의 사회로 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 김영구 목사의 기도 후에 최선영 교수가 학사보고하고 엘리야 김 총장이 학



유나이티드 바이블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 연합예장 총회 및 성령 컨퍼런스 열려

제9회 미주연합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성령 컨퍼런스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는 주제 아래 필렌 열린문기도원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목회자 세

미나와 특별 성회, 유나이티드 바이블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식, 목사 안수식과 선교사 파송식 등이 거행됐다. 권다니엘 총회장은 "주님 안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졸업식에서는 총 10명이 박사과 석사, 학사 학위를 받았고 목사 안수식에서는 5명이 안수 받았다.

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GIFT 센터에서 MBTI 대화 기술 세미나가 최근 열렸다.

### GIFT, MBTI 대화 세미나 개최

GIFT 카운셀링 웰니스 센터가 MBTI 대화 기술 세미나를 지난 6월 2일 개최했다.

영향을 주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GIFT 측은 마음치유 교실과 관계기술 교실을 준비 중이다. 오는 가을에는 마음 치유 교실 중 하나인 "내 안에 어린아이 치유하기-회복으로 여행"을 준비 중이며 정신건강 응급처치 훈련 프로그램인 KAMT 기초반(위생병)과 심화과정(군의관) 훈련 가을 학기 등록도 앞두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info@giftheal.com로 하면 된다.

임상심리학 박사인 리디아 전 대표가 직접 이번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격 유형과 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 실습을 통해 성격 유형에 대한 배움과 이해가 소통과 대인관계에 얼마나 큰



디사이플교회에서 설교 중인 노진준 목사

### 디사이플교회 노진준 목사 초청 예배

지난 17일(주일) 알바인의 디사이플교회(담임 고현종 목사)에서 노진준 목사를 초청해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노 목사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전해 주었다. 디사이플교회는 2009년 1월 개척됐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 성결교회 교역자들이 탁구대회로 친목을 다졌다.

### 성결 남가주교역자 탁구대회 개최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안신기 회장)가 지난 6월 12일 오전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에서 정기기도회 및 탁구대회를 개최했

다. 이 탁구대회에서는 김종호 목사(예향선교교회), 김시은 목사(토기장이교회)가 시니어, 주니어팀에서 각각 우승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월드쉐어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사태 구호금 모금** 중입니다.

월드쉐어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사태 구호금 모금** 중입니다.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가난에서 허덕이는 교외와 있다. 인간 아픔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베데스다대학교 제41회 졸업식이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됐다.



시베리아 투멘에서 아버지학교가 개설됐다.

# 베데스다대학교 제41회 졸업식 거행돼

## 다민족 74명 학위 받아

베데스다대학교 제41회 졸업식이 지난 16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거행돼 74명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 설교는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이며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장인 진유철 목사가 전했다. 진목사는 졸업생들을 향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께 집중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신학대학원 장인 조지 위니 박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프랭크 마차이 박사(벤가드대학교 종교학부 디렉터)가 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김성혜 이사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라”고 조언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가 명예목회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이 학교는 미주 한인신학교 가운데는 최초로 2001년 ABHE 인가를 받았으며 2006년 TRACS의 인가도 획득했다. 한인신학교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민족들이 재학하며 신학, 음악, 유아교육, 경영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졸업자 중에도 무려 50여 명이 중국인, 흑인, 라티노 등이었다.

# 미주 아버지학교 시베리아 상륙

## 교회와 연합해 단기선교 사역도 진행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도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 미주 아버지학교의 행보가 예상치 못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버지학교를 개최하며 가정사역을 통한 복음 전도의 문을 연 아버지학교가 시베리아에도 상륙했다. 지난 6월 7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2박 3일간 러시아 시베리아 주의 투멘(Tyumen)에서 현지인 목회자와 리더들 4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 투멘 1기가 세상의빛교회(스베틀미르교회, 세르게이 목사 시무)에서 개설됐다.

그리고 6월 5일에 출발할 때까지 LA에 있는 선교단체인 들꽃향의 20명 선교팀이 매주 1회 모여 러시아어를 배우고 찬양을 준비했다. 양·한방 의료사역과 안경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했다. 또한 선교팀 자녀 3명도 부모들을 도와 사진과 관리를 맡아주었다.

이번 시베리아 아버지학교에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었다. 첫째, 현지 목회자와 리더들을 수료자로 배출해 더욱 효율적으로 제2기, 3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미주 아버지학교 팀과 교회 단기선교팀이 연합해 낮에는 의료 사역과 안경사역이 이뤄지고 저녁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가 열린 점이다. 셋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베리아 선교에 동참해 가정사역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지에서 총 35명의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수료하게 되었고 개설교회의 담임인 세르게이 목사는 이번 1기들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시베리아 지역에서 2, 3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기회 회장으로서의 결단을 밝혔다.

투멘 1기를 개설하기 위해서 미주본부 아웃리치 팀장인 정현호 형제와 사무국장인 이명철 목사가 현지 교회와 모든 시설을 직접 3월에 방문하여 답사했다. 아버지학교 진행을 위해 우크라이나 목회자이며 아버지학교 통역이었던 드미트리(Dmitry) 목사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버지학교 형제 6명, 우크라이나 조장 형제 1명이 미리 준비를 했다.

미주 아버지학교 사무국장인 이명철 목사는 “앞으로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와 각 지역 교회의 단기선교팀들이 연합해 복음전과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버지학교는 초교과적인 가정회복 운동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된다”는 취지 아래, 가정에서 올바른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으며 미주본부는 LA에 기반을 두고 북미인 캐나다와 남미의 아르헨티나까지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동구 유럽과 러시아에서 가정회복 사역 요청이 들어오며 따라 미주본부는 2017년부터 유럽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고 있다.

문의) 213-382-5454 fatherschoolamericas@gmail.com

#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



장애우사랑교회에서 어르신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가 열렸다.

장애우사랑교회(오진형 목사)가 어르신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를 지난 16일 오전 10시 중앙양로병원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8년째 열리는 찬송가 암송 경연대회는 제25회를 맞았다. 18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고 있는 장애우사랑교회는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으로부터 어르신을 돕기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찬송

가를 암송해 부르는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이 찬송가를 외워 부르며 치매와 같은 질환도 개선되고 건강의 축복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찬송가 경연대회는 오진형 목사의 인도로 마동환 장로가 기도하고 중앙사랑합창단의 특별공

연 후 송중호 목사(은혜한인교회 부목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시편 40:31)”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목사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오직 하나님을 찾음으로 새 힘을 얻고 축복받는 어르신들 되라”고 설교했다. 오진형 목사의 광고 뒤에 임균만 목사(참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열린 찬송가 대회에는 총 14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암송해 찬양하고 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찬송가 경연대회는 장애우사랑교회 주최로 한미동맹(임청근 총재), 마동환변호사 그룹, Ultra Lighting, 올림픽 칼국수, 남가주황해도도민회, 뉴욕제과, 팔가순대국, 은혜한인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침반교회, LA사랑의교회, F.H.M선교회, 동경성광교회, 도가네그리스도은총교회가 후원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한 달에 남게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9〉

### 미국이어!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필자는 며칠 전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샵을 들렀다가 커피샵에서 일하고 있는 허준을 쓴 청년을 만났다. 그 자매에게 인사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물었다. 터키 사람이라 했다. 반가웠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 물었더니 말라티야가 고향이라 했다. 나는 더욱 반가워서 말라티야 시외버스 터미널과 그 앞에 있는 큰 공원 이야기, 말라티야의 멜키스(다운타운) 이야기 등 내가 간 곳을 이야기했더니 자기 고향을 이렇게 잘 아는 한국인을 만난 반가움이 컸나 보다. 큰 두 눈에 눈물이 송알송알 고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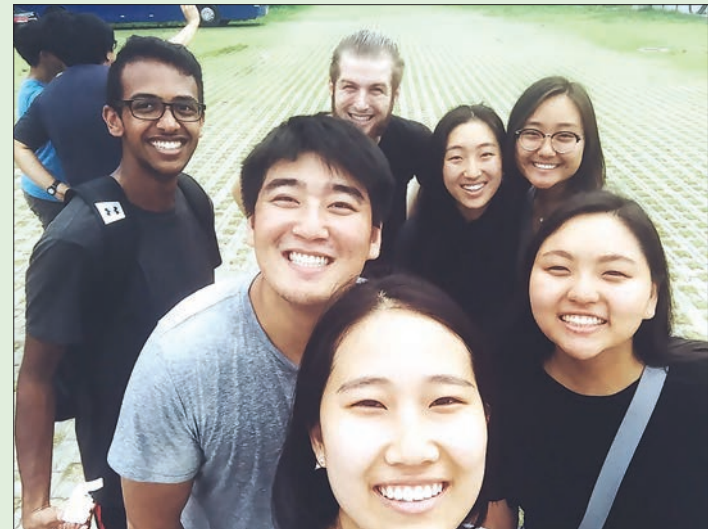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김넷(KIMNET) 선교동역 네트워크 사역에 이사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그 모임에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40여 개의 한인 선교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중에 미국의 도시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하게 사역하는 선교단체들도 있다. 그 선교단체들은 미국 도시 속에 들어온 타문화 타인종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사역을 더욱 구체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다.

나는 지난 십여 년간 터키를 사랑하며 매년 방문하며 지냈다고, 나는 크리스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가고 말라티야에도 교회가 있고 그곳 선교사님들을 보기 위해 들른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도에 있었던 말라티야 순교자 사건은 모르고 있었다. 미국 안에 수만 명의 터키민족이 이민으로 유학으로, 사업으로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

나는 그 청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필자가 다니는 마켓, 상점, 주유소 등을 돌아보니 대부분 점원들이 다 외국인들이었다. 인도, 케냐, 알제리, 중국, 몽족, 몽골, 이란, 시리아 사람 등이 내가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다. 새삼 미국은, 특히 이 LA는 다민족 다문화권의 도시임을 실감한다. 최근 한인타운 내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 문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인종들과 함께 살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민족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들도 다 달라서 종교까지도 그 다양성을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 있다.

우리 도시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선교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의 2세대들이 사역할 다민족 연합교회의 꿈을 꾸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것에 비용의 부담이 뒤따르지만,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온 다민족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도시선교는 물질적 부담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만 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리라. 이미 도시선교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도시선교단체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지교회들이 다민족을 향한 선교사역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고 있음을 절감한다.



다민족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청년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기독교 정신으로 ‘신뢰’가 있어 행복한 덴마크

행복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정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안녕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 성숙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덴마크의 행복을 살피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덴마크 사회가 행복을 품은 성숙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덴마크 사회가 시민의 행복을 품고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덴마크 사회를 말할 때마다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신뢰감이 있는 사회가 안정감, 안녕감을 갖게 합니다.

덴마크는 신뢰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수입의 절반을 아무 불평없이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들은 정부와 공무원의 정직성을 신뢰합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 건설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지 경제발전의 왕도입니다.

덴마크는 국민들은 판결 등 법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94%가 법원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국민은 대략 20% 내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늘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반면에 덴마크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덴마크 정부나 기관에 대한 국민이 신뢰도가 80% 대이고 한국은 정부 신뢰도가 34% 대에 머무릅니다.

덴마크 정부의 높은 신뢰도 밑바탕에는 공무원들의 검소한 삶이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특별하거나 화려한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즐깁니다. 국회 의사당에 즐비한 자전거들은 국회의원들의 출퇴근용 자전거들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평범한 삶을 웅변합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선택하면 부정 부패가 사라집니다.

덴마크 시민들 간에도 두터운 신뢰가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서로를 믿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

내 커피숍 입구나 백화점 입구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유토차들이 모여 있는 것을 흔히 봅니다.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기절조종할 장면이지만 이웃과 사회를 믿는 덴마크 어머니들에게는 일상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같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80% 수준입니다. 대단히 높은 신뢰도입니다.

덴마크에는 곳곳에 무인 판매대가 있고, 지하철 요금 징수원도 없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성숙한 시민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성숙한 사회입니다. 그룬트비와 그의 동료들이 150여 년 전에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운 덴마크 사회가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희망입니다.

덴마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세상이 신뢰도 높은 행복한 세상임을 보여 줍니다. 덴마크를 벤치마킹했다는 우리 새마을 운동이 놓친 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사회 바탕에 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개량하고, 길은 넓혔지만 행복의 비밀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발전하였는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점점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살아 보세!” 대신에 “성경대로 살아 보세!” “바르게 살아 보세!”를 외쳐야 합니다. 성경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 GMI 오케스트라 미니 콘서트로 환우 섬겨



세인트 주드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한 GMI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

은혜한인교회 소속 GMI 유스 오케스트라가 지난 6월 13일 플러튼에 위치한 세인트 주드 병원 1층 본관에서 미니 클래식 콘서트를 열었다.

이들은 비발디 사계 중 봄, 여인의 향기 OST, 겨울왕국 OST, 디즈니 클래식 등 누구에게나 익숙한 곡을 클래식 악기를 사용해 아름답게 연주했다.

이번 콘서트는 매일 계속되는 치료에 지친 환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를 위한 연주였으며 연주 후 함께한 단원들도 행복한 모습을 감추질 못했다.

GMI 유스 오케스트라는 오렌지 카운티 심포니 부지휘자이며 플러튼 칼리지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하는 정승재 교수가 지휘하며 가르치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 가입과 활동에 관심있는 이들은 이메일 gmiorchestra@gmail.com 또는 전화 714-318-2085로 문의하면 된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개혁장로회 RPCA) 창립2주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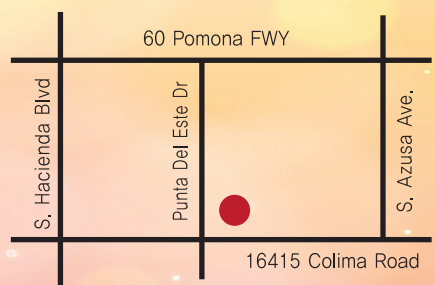
##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 이전감사예배

저희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전하고  
이제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담임목사 김영일

- 일시 : 2018년 6월 24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개혁장로회)
- 주소 : 16415 Colima Rd, Hacienda Heights, CA 91745
- 전화 : (626)831-8829

예/배/안/내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  
Emmanuel Love Church  
주일 예배 오전 10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나발과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

사무엘상 25:23~3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사무엘상 25:2-3에서 보면 “마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던대라”고 아비가일과 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운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 다윗이 육백 명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훗날 교만하여 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거역하여 불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세움 받고 쓰임 받는다고 다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공덕을 치하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득이 그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을 이미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맡겨진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도 맹수들과 싸우면서까지 목자의 사명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 신앙인격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맘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에게 망명생활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용(武勇)에 뛰어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었던 곳이 갈멜이었습니다. 다윗은 근처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던 나발의 목자들을, 당시 강도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지시하고 더불어 목동과 양떼까지 보호하여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 되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수입이 생기는 소망적인 날이라 큰 잔치를 베풀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넉넉히 대접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심을 후히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

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삼상25:5~8)”고 그의 부하 열명을 나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고 합니다. 그는 빈정대며 주인에게서 떠나 반란을 시도하여 갈라져 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 있다고 다윗을 빔대어 욕을 한 것입니다.

나발의 미련함은, 첫째로 하나님이 성경을 충만케 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사람인 다윗을 몰라본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껏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여 죄짓는 일에도 사용하고, 사치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남용하여 잘못 쓰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나발이 했지만 결국 다윗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세 번째 미련함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 믿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전혀 무지했습니다.

나발의 이런 미련함에 빈손으로 돌아온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백 명 가량의 칼을 차게 하고 그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이백 명은 그 소유물 곁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도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동과 가족을 돌보아준 것에 대한 응답한 댓가로 생각한 다윗은 나발이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19~20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 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종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서둘러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덩치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의 남편 나발이 너무나 서운하게 대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남편은 이름과 같이 미련한 자며, 자신이 신앙인격으로 그런 남편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자신이 가져온 이 음식으로 배불리고 용서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쓰실 계획을 압니다. 곧 왕이 되실텐데 왕좌에 오르시게 되면 이런 미련한 사람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왕의 허물이 될까봐 이처럼 사정하고 비오니 미련한 자들을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괴욕을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음식을 받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에게로 가보니 왕의 잔치같은 잔치를 하며 술에 크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기다려 술이 깬 후에 말을 해줍니다. 신앙적인 지혜는 반드시 해야 할 말도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상대를 잘 알아 상대가 영적인 유익함으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 했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지켜가기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안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죄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상대의 형편 사정을 살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못을 일러주고 깨우쳐 준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앙인격으로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 나발이 다음날 아침, 술이 깨어 일어났을 때 전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그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 다윗을 알아보게 된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 맞추어 처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은 신앙인은 예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회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나발과 같이 없애버리십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한 영적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의 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미전도종족!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한

# 연합수련회 청년에배자

작은교회 청년연합수련회

## \$40

(w/ 매칭\$60)

**8/2-4  
2018**

### 고창현 목사

현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전 한국 지구촌 교회의 지구사업  
(젊은이목장센터장)  
KOSTA 강사

### 변용진 목사

God's Image Ministry 대표

### 김철리 목사

베델한인교회 예배음악 총괄,  
KOSTA 강사

### 김도일 목사

전 EBS PD, 밀알의 밤, 블레싱 콘서트 PD, 세계등대교회 사역총괄

### 김우혁 전도사

Dejong Film대표, 새생명비전교회 찬양인도자

### 조영석 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CCM 찬양사역자

### 우영혜 전도사

One Heart 인도자, CCM 찬양 사역자

## With 원하트 워업밴드

## 등록 및 후원

문의 : 김혜지 간사 213-347-5080  
lynnkimoneheart@gmail.com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체크 또는 인터넷 등록

Pay to : CTSM & cosyscosys@gmail.com (Paypal)

매일 주소 : 2500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청년들이 연합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매칭으로 후원해주세요. 한 사람의 청년을 예배자로 만드는데 \$60을 헌금해주세요

## 매칭\$60

한 사람의 청년을 예배자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비용

후원 : GBC 미주복음방송, 기독일보

교회후원 : 나성순복음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일랜드코너스톤교회, God's Image, 세계등대교회

Rings Heaven '반지 천국' 론칭 기념 10일간의 빅 이벤트

세계최대  
가격파괴  
반지전문

# '반지 천국' 그랜드 오픈 BIG이벤트!



그렇게 싸다문 가는데  
멀다 하면 안되겠구나~

다양한  
디자인

L1세 진주반지 등 1천여점

## ★ 퍼레이드!!

한국세공  
최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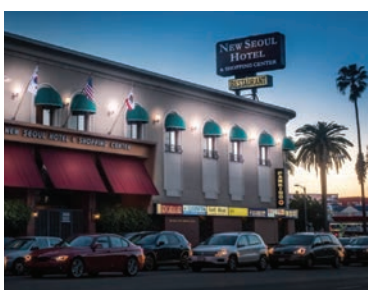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한국세공 진주 및 각종반지  
믿을수없는 착한가격 59불 부터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프리미엄 고급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 전시판매!



Special!! 반지 목걸이 100여 세트 특별 전시판매



**반지 천국 빅이벤트 일정**  
2018년 6월 21(목)-30일(토)까지 단 10일간  
한인타운 내 뉴서울 호텔 상가 특설매장  
2666 W Olympic,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과 + Menlo 와 Westmoreland 사이)



행사주관사 : 반지천국 RINGSHEAVEN.COM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최홍준 목사

### 목사와 장로 모두 목양에 목숨 걸어야 '목양장로' 세우는 국제목양사역원 대표 최홍준 목사

현재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고 있다. 분쟁은 주로 교회 내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일어나고, 그 중심에는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담임목사와 장로가 있다.

부산 호산나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다 65세에 조기 은퇴한 최홍준 목사는 사역 2기 활동으로 국제목양사역원을 설립하고 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구촌을 누비고 있다. 바로 목사와 장로가 목양을 함께하는, 성경적 장로상의 회복을 통한 '목양장로' 사역이다. 장로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한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를 깨우고, 이를 알리는 컨퍼런스다. 이 외에도 제자훈련 교회들을 돕는 워크숍 및 코칭, 교회를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최홍준 목사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목사와 장로의 갈등,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11-12절)'고 하셨습니다.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동일하게 목양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영적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다루고 싸우면 양들이 죽습니다. 상처입고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양을 위해 존재해야지, 자신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라고 하셨는데, 목숨은 못 줄지언정 상처를 줘야 되겠습니까.

왜 본질에서 떠나 있습니까? 본질은 목양인데, 행정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목사와 장로의 본질은 동일하게 목양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에서도 이전 교황제에서 사라졌던 장로 제도를 복원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는 장로가 없지 않습니까?

칼빈이 제네바에서 최초로 목사와 장로의 목양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컨시스토리(consistory, 장로회)를 설립해 제네바 시민들의 도덕적인 삶을 개혁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로 피신하고 있던 존 낙스가 이를 보고 '인팩트'를 받아 돌아가서 목양 장로를 복원했고, 이것이 장로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지만, 제네바의 칼빈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제대로 뿌리내린 장로교는 미국과 남아공, 네덜란드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본질 회복' 차원에서 장로에게 목양을 시키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을 배우고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제자반과 사역반을 거쳐 순장이 되면 안수집사가 되고, 오랫동안 잘 섬기면 장로로 추대됩니다. 처음에는 장로가 되어도 소그룹 순장을 계속 했습니다. 이것도 목양이니까요. 전통 회회를 목회하면서 장로들이 목양을 하니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15-20년이 지나면서 장로들이 힘들다며 목양을 놓아버리고, 행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성 교회의 장로 모임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고민하다, 아예 교구를 나눠 각 교구에 목양 담당 장로를 세웠습

니다. 교구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문제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며, 여러 가정사 등을 관계하면서 목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성도와 접촉하면서 목사가 받는 고민과 희열, 기쁨과 환희를 장로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성도들은 장로를 존경하고, 목사는 장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목양 상황을 공유다 보니 장로들도 목사를 존중하게 됐습니다. 장점은 존중하고 단점은 포용하면서 아름다운 목양 공동체가 이뤄지다 보니, 성도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목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돼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 -목양장로는 그냥 장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교단 헌법을 봐도, 장로의 직무 90% 이상이 목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목양을 자신들의 고유 사역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 본질이 나와있고, 무엇보다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본질에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에 동사가 5가지 나오는데, 본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은 '천국을 위한 대기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현상이 교회라면, 훈련받고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의 본질이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 앞에 이러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400명 있던 교회에 1만 명이 모이게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 -교회 분쟁 중 많은 부분이 '원로목사와 후임의 갈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로이든 후임이든, 목사는 양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양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을 실족시키고 상처주고 교회를 떠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삯꾼은 도망간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원로가 지나치게 간섭을 해선 안 되고, 후임은 그렇다 해도 원로와 싸워선 안 됩니다.

싸우는 게 쉽지, 싸우지 않는 건 어렵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죽었노라' 하고 가야 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해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학문만 가르치고 있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는 절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신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 ◆최홍준 목사는

故 옥한흠 목사와 제자훈련 지도자 1세대로 섬기다 1987년 당시 부산 새중앙교회에 부임해 제자훈련을 정착시켜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켰다. 2000년 호산나교회로 이름을 바꾼 뒤, 이 교회는 목양장로 사역을 통해 주일 출석 1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제자훈련의 정점은 장로의 본질 회복, 즉 목양장로 사역"이라는 지론을 갖고 목회해 왔다.

이대웅 기자



###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세례/박람회,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혹들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교동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혹들부 오전 11:00 6:00(토)  
중교동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일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침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죽성경공부 오후 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종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3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리셋예배(열린마음 소떼예배)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2.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유혹들부 오전 11:00

**청운교회**  
선교에 효를, 소.친.초 정신의 효를, 바른교회관의 효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중현선교회**  
블러세(Calling), 고지교(Healing), 기쁨(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혹들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의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평일)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혹들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 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여침례예배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예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할-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7:30, 1부예배(토)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토)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장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일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행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자원사명과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항과 같으라(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net.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98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T. (232)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총회장 최기학 목사

**월드컵 세계 평화와 친선의 장 되길**  
**예장 통합 최기학 목사, 한반도 정세 관련 담화문**

예장 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18일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기학 목사는 “우리 민족은 핵무기 개발과 전쟁을 벗어나 평화로 향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가져온 변화”라며 “이제 남북이 평화교류를 향해서 나아가갈 소망을 갖게 됐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며 “한민족이 전쟁과 식민 지배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일곱 번째 치르는 6.13 지방자치선거를 마쳤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국민들의 민의에 따라 정책과 인물을 선택했다”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자들은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세로 지역 주민 밀착형 생활정치를 펼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선거에 낙선한 이들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바란다. 지역사회의 풀뿌리를 다지는 마음으로 주민 결속을 나아가고, 정치적 소신을 꺾기보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해빙의 계기가 된 것처럼, 러시아월드컵도 세계 평화와 친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곳곳의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님 손길과 참전용사 희생 기억해**  
**새에덴교회, 6.25 상기 보은·평화 기원예배 드려**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6.25 한국전쟁 제68주년을 약 일주일 앞둔 17일 저녁 ‘한국전쟁 68주년 상기 참전용사 초청 보은·평화 기원예배’를 드렸다. 새에덴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UN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해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고 이에 보답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가 12회 째.

이번엔 흥남 철수 작전 생존 증인과 가족, 참전 영웅들의 유가족 및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초청됐다. 특별히 흥남 철수 작전의 책임 지휘관이었던故 알몬드 장군(당시 미군 10군단장)과故 호주 대령(상륙작전 참모장)의 유족, 193척의 함정과 수송선을 지휘했던故 제임스 독일 제독(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유족, 끈질긴 설득으로 10만 명의 피난민 구출을 성공시켰던 미군 제10군단 인사부 고문 및 통역관故 현봉학 박사의 딸 가족, 흥남 철수 작전시 미국 매리디스 빅토리아의 1등 항해사로 참전했던 생존 증인 로버트 러니 예비역 해군 제독(91) 부부, 그리고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와 가족 등 총 4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16일 입국해 이날 새에덴교회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한 뒤, 보은·평화 기원예배를 새에덴교회 교인들과 함께 드렸다. 이들은 18일부터 20일까지 현충원과 평택 미8군기지를 비롯해 판문점과 도라산 전방대,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본 뒤 21일 출국한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국기를 든 가수들의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보은·평화 기원예배는 소강석 목사가 설교한 1부 예배와 국가제장 및 전사자와 실종자들에 대한 추모·흥남 철수 작전 감사 인사로 구성된 2부 기념식, 김진표 국회의원·김창중 전 미연방 하원의원 등의 감사·축하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억의 힘’(신명기 16: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소강석 목사는 “우리는 기억의 힘을 믿는다. 12년 동안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개최해 온 이유도 그 힘을 믿었

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참혹했던 전쟁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리디스 빅토리아의 1등 항해사로 아직 생존해 이날 참석한 로버트 러니 예비역 해군 제독 등 흥남 철수 당시 참전용사들을 언급한 소 목사는 “이들은 전부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박애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러므로 흥남 철수 작전을 끝낸 성공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의 은혜로 이뤄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구출작전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패일수록 우리는 지난 날 참혹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그래야 위대한 평화 또한 맞을 수 있으며 그것을 마침내 지켜낼 수도 있다. 통일이 된 후에도 6.25를 잊어서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의 숭고했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다. 김진표 의원이 대독한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값진 생명과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서한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국)의 재향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잘 섬겨주시는 새에덴교회가 미국 정부가 해야 할 그 신성한 의무를 대신 해주셔서 미국 전쟁 영웅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며 “미국의 온 국민들을 대표해, 지난 12년 동안 매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은행사를 열어주신 한국의 새에덴교회와 소강석 목사님께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 北 박해 기독교인 위한 행동 취할 것

###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이후 밝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의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곤경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질문에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CBN 뉴스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자선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자갈’ 대표이기도 한 그래함 목사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4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감시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즈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담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아래 박해와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 3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의 곤경을 언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특히 기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픈도어즈가 매년 선정하는 박해국가지수에서 17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는 최소 5만 명에서 1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요한(John Choi)이라는 이름의 북한 기독교인은 신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화학무기 실험에 동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기도 한다. 그는 “국경의 경계가 과거보다 훨씬 삼엄해지면서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에리트레아 목회자

### 구금된 지 11년 만에 석방

#### 결혼식 도중 60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체포돼

에리트레아의 한 목회자가 10년이 넘게 구금돼 있다가 풀려나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순교자의 소리는 최근 ‘옥바미켈 하미노트(Oqbamichel Hamintot) 목사가 지난 6월 7일 에리트레아 교도소에 수감된 지 11년 만에 완전히 풀려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즈마라에서 ‘생명의말씀’ 교회를 맡고 있던 하미노트 목사는 지난 2005년 결혼식 도중 60명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체포됐다.

친인척들에 따르면, 이들은 사와의 군 센터로 옮겨진 후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몇 개월에 걸쳐 석방됐으나 하미노트 목사와 5명은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하미노트 목사는 신앙 때문에 학대를 받고 독방에 갇혀 지내다가 결국 신경쇠약에 걸렸고, 당국은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7년 다시 체포됐다고 순교자의 소리가 전했다.

미국 순교자의 소리 토드 네틀턴 대표는

미션네트워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에리트레아에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미노트 목사처럼 장기간 구금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왜 그가 이 시기에 석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그가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가 회복되고 난 이후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에리트레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에리트레아는 올해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박해국가지수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네틀턴 대표는 “에리트레아 정부는 2002년부터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단속하기 시작해 전국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을 폐쇄시켰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섬기는 용기가 발견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 “한 번의 잘못된 클릭 때문에”

### 가정연구위원회, 포르노 해악 조사보고서 발표

미국의 보수단체인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는 최근 포르노가 여성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한 익명의 여성은 보고서에서 “한 번의 잘못된 클릭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 전혀 극적인 표현이 아니다. 난 서로를 동물처럼 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남성과 여성을 지켜보는 세계로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내가 본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나 이러한 이미지들이 가져다주는 느낌 때문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멀리할 수가 없었다. 난 계속 반복해서 영상으로 돌아왔고, 이러한 습관은 사랑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어놓기 시작했다. 이미지들이 내 마음에 계속 불타 올랐고 이를 꺼낼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당시 겨우 15살이었다고 한다.

FRC에서 ‘생명, 문화 그리고 여성의 옹호’ 책임자이자,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패

트리나 모슬리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의 월별 방문자 수는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를 합친 것보다 많다. 또 18~30세 사이의 미국 여성들 가운데 76%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포르노를 본다고 답했다. 기독교인 여성들 가운데 최소 한 달에 한 번 포르노를 본다고 답한 이들은 15%였다. 또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회지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에 따르면, 젊은 성인 여성의 49%가 포르노를 성을 표현하는 수용할 만한 방식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슬리 박사는 “대부분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 포르노는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포르노의 물결을 돌리고 성 문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만약 당신이 포르노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한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0:00 **민경엽 담임목사**  
3부(영어) 오전 12: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말학교 오전 10: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Youth Orchestra (주말) 오후 12:30  
토요새벽인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카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베넬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말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 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am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생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 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우대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생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권능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예배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침례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침양예배 오후 7시(수) 재자서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A)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갈3:28). 그 당시에 소외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갇힌 자들을 고쳐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운명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며, 모든 죄를 용서 받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혁명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초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고통을 통해 변화됩니다. 가난, 모자람, 실패, 갈등, 질병, 시련 등과 같은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둘째, 꿈을 통해 변화됩니다. 꿈이란 고통스런 현실에서 아름다운 미래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만남을 통해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만남, 훌륭한 인물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를 창조하는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통해 변화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변화와 성숙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 임하기 때문입니다(고전 3:6-7).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 엘에이 동부 로렌하이트에 있는 아름다운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담당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자격: 현재 정규 신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으로 청년사역에 열정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목회 소명 간증 포함)
  - 신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목사 안수 받은 분)
  - 직전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필수) 외 1명의 추천서
  - 설교 컴퓨터 파일 혹은 CD
- 제출방법: beautifulchurch@hotmail.com
- 기타: 서류검토후 면접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아름다운교회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탬파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탬파에 위치한 탬파제일장로교회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 KPCA 소속)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정규 학사(B.A.) 및 목회학 석사( M. Div) 학위 소지자
2.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3.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4. 미주 목회경력 3년이상 하신분 (담임목사 경험 있으신 분 우대)
5. 영어 소통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목회자 2인 추천,관계 및 연락처 포함)
2. 자기소개서 및 가족소개
3.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4. 목회 계획서 (목회 철학, 목회 비전)
5. 최근 설교 영상 2편 (CD, USB)

### 접수마감

2018년 7월 31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서류는 도착 순서대로 검토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 (우편) James park (박인석 안수집사 운영위원장)  
19511 French Lace Drive, Lutz, FL. 33558  
(이메일) jamespark1962@yahoo.com  
sinaenmul@gmail.com (청빙위원장 정경성목사)

탬파 제일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위원장 정경성 목사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생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 있다는 것, 살아 내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생존만을 위해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생존을 넘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삶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는 누구나 추구합니다.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아름답기 위해 변화를 추구합니다. 더욱 잘 살기 위해 변화를 추구합니다. 문제는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늘 똑 같은 생각과 똑 같은 태도와 똑 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똑 같은 결과만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태도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변화하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통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롬 12:2).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자세의 변화, 성품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9)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우리는 다윗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받지 못했다. 주인의 아들이었는데도 어려서부터 집안의 하인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그 집 아들을 모두 세워 놓고 이스라엘 왕을 고르는 자리에 끼지도 못했다. 아예 가족 구성원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놓은 자식' 다윗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울도 실패한 왕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누가 부모와 형제까지 내버린 다윗에게 이런 최고의 가르침을 전해준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가르치고 길러내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도 가르치는 자, 곧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을 찾으신다. 그 일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가

르치신다. 미국은 열여섯 살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곧바로 십대 자녀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자녀와 타인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기능과 구조,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감과 방법을 가르친 뒤, 자녀가 이 모든 것을 숙지했음을 차근차근 검증하고 나서 키를 내줄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노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릇,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가르치신다.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부모, 교사, 목회자, 전도사, 교수 등)는 하나님의 조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지식과 성품만 강조해도 안 되고, 영성과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된다. 배우는 이가 실력과 신앙의 균형을 갖도록 가르치고, 무엇보다 매일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세를 소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즉, 배우는 이가 교사나 부모의 일시적인 도움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 뒤, 스스로 지식과 진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 영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뤄질 미래를 여는 열쇠는 올바른 기독교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꿈을 막는 장애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그를 격려하지 않았습니. 무모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애가 거절(Disapproval)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어린 아이가 감히 어릴 으냐고 다윗의 전령터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Doubt)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난관을 이기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꿈의 실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러시아 월드컵으로 온 지구촌이 뜨겁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응원팀들이 외쳤던 캐치 프레이즈가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축구팀이 그 막강한 팀들을 이기고 월드컵 4강에 오르는 신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또 넘어야 할 난관도 많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꿈을 막아서는 네 가지 장애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자이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가 지연(Delay)입니

# 모든 전신 갑주를 입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한양훈 목사, <에베소서 강설> 펴내

실로암 사역센터 회장으로서 곳곳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한양훈 목사(서울우리교회)가 <에베소서 강설>을 펴냈다.

한양훈 목사는 그동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강해> 등의 강해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다수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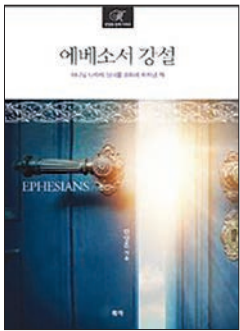
저자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더불어 신약 시대의 문이 열렸을 때 활동했던 최고 수준의 사도일 것"이라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10여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가졌고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온(고후 12:2)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사도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기록한 이 성경(에베소서)은 상당히 수준 높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바울은 그의 생애 말년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 보내야 했다(A.D. 61-63). 그는 그 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등 여러 교회와 인물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고생하며 맨 처음 세운 교회였다.

저자는 "바울은 이제껏 여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때도 여러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며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은 폐쇄된 독방이 아니었기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각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힘써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년에 이른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숨겨졌던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비를 거칠 것 없이 이 글(에베소서)에 쏟아냈다"며 "신비라는 바다 속 깊이 빠져 들어간 지식인이 몸으로 쓴 책"이라고 전했다.

에베소 교회만의 특성도 소개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일곱 교회 중 맨 처음으로 말씀을 주신 교회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에베소서의 저자



에베소서 강설  
한양훈 | 유하 | 271쪽

인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때 교회가 세워졌다(행 19:8-10).

저자는 "바울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 그리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와 싸울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의 신비로운 관계에 관해 말한다"며 "이렇듯 영적으로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는 바울의 글을 영적으로 다시 읽으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더불어 "저 또한 바울이 이 글을 쓴 나이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 손이 가는 대로 바울의 심정을 옮겨놓았다"고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교회에 드러낸 책"이라는 부제의 해당 도서는 에베소서의 차례에 따라 '신령한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거하시길 초소', '비밀을 알다', '새 사람', '신비', '영적 전투' 등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본격적인 강해에 앞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전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읽었는지, 신실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 읽었는지 생각해 본다"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사람, 말씀을 잘 받아 실천할 사람이 받아야 한다. 성령이 감동하여 쓴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확히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저자는 에베소서의 마지막인 '전신 갑주'에 대해 어떻게 강설했을까. 그

는 "전신 갑주는 군인이 입는 갑옷인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하늘로부터 온다. 아마 바울은 그가 자주 보던 로마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바울은 투구, 호심경, 검, 방패, 허리띠, 군화를 말했는데, 이는 강력한 로마 병사를 보고, 또 그 자신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며 "오늘날 성도들도 로마 군인처럼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글을 쓸 리가 없다. 마귀는 그 자체가 간교해, 간사한 계략으로 하나님을 택하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광분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성도가 돼야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 한양훈 목사는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할 때,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마귀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병을 치료하실 때, 파도와 바람을 잡잡하게 하실 때 다 말씀으로 하셨다"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마귀에게 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예수님과 바울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듯, 성도들도 다 그렇게 돼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할 뿐 아니라, 가르침, 행정적인 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 화목하도록 중개하는 일 등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군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이 이를 직접 취하여 입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 "교회가 마귀와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교장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 한양훈 목사는 종신대와 합동신학원에서 공부한 후 기독교 영적 사역에 힘쓰며 30년 이상 목회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묻지마 신앙? 묻는 신앙"



성도생활백과-교리편  
이성호 | 좋은씨앗 | 232쪽

개혁주의 관점에서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의 기초 교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강태광 목사의 추천 도서>

## 하나님의 서커스단



하나님의 서커스단  
곽건섭  
따스한이야기 | 170쪽

개하고 있다. 고신대 신대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면서 목회도 하고 있는 저자는 '질문하는 신앙'의 회복을 역설하고 있다. 교회에서 '질문'은 '의심' 또는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질문이 지닌 가장 큰 힘은 성경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에 대한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은 성도는 물론, 교회에 처음 나와 각종 '질문'을 갖고 있는 새 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된다. 이 책은 과장이나 꾸밈이 없다. 단점에서 밝히겠지만 이 책은 너무 꾸미지 않았다.

선교 사역 교과서다

이 책에는 20여 년간 중국 선교에 헌신한 저자의 짙한 영혼사랑, 중국사랑이 녹아 있다.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교회를 사랑하고, 중국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자는 선교사의 눈으로 중국을 그리고 있다. 선교사의 마음, 선교 현장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수용하는 선교 사역자들의 자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을 선교사 지망생들이나 선교 후원자들 그리고 선교현장에서 지친 선교사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행복한 선교 현장 보고서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부럽기도 했지만 선교 현장이 부러웠다. 선교 현장 요소 요소에서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구원, 변화 그리고 헌신의 역사들을 보면서 '선교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 책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현장임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투박함의 아쉬움이 있다

이 책이 완벽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은 투박하다. 책을 만들기 위해 만든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섬세한 교정의 흔적도 없고, 세련된 디자인이나 숙련된 편집도 볼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이 더 좋다. 순수하고 꾸밈없는 생생한 간증들이어서 참 좋다. 똑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할까? 투박함에 담겨진 진한 감동과 도전을 독자들이 누리기를 바란다.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 USA 대표, 본지 편집위원

##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  
당신만의 완벽한 맞춤 샤프트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 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Fitting Technology GOLF  
**FiTec**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MATRIX** SHIRTS  
**FOURTEEN**  
The Club by Design Club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어움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황금문



시온 문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8)

# 예루살렘 성문들- 사자문, 황금문, 분문, 시온 문

## 사자문

예루살렘 성에는 4개의 이름을 가진 사자문이 있다. 이 문은 스테반 문, 마리아 문, 양의 문이라고도 불린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 산과 베데스다 연못, 안나교회, 빌라도 법정,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문은 감람산과 마주 보며 예루살렘 성벽의 동문에 위치하고 있다.

사자문이란 이름은 오스만 터키의 술탄만 황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고 있을 때 사자 4마리가 나타나 황제를 삼키는 꿈을 꾸 후 지어진 이름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몽을 듣는다. 사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정복당할 것을 상징한다고 하여 황제는 꿈에 나타난 4마리 사자를 성문 양쪽 문에 한 쌍씩 조각하여 놓았다. 그 뒤로 이 문을 사자문이라 부르게 되었다.

'스테반 문'이란 이름은 스테반 집사가 이곳에서 나와 키드론 골짜기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행7:54-60)

또 여호사밧 골짜기로 향한다 하여 '여호사밧 문'이라 하기도 한다. 마리아의 생가가 이 문 안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 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양의 문은 이곳이 구약시대부터 성전 제사를 위해 양들을 들여보내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매주 금요일에 이 문 근처에서 양을 팔고 사는 시장이 열리고 제물이 될 양이 출입한다고 하여 오래 전부터 양의 문(느3:1)이라 불렀다. 1920년 영국군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입구를 확장했고, 1967년 6일 전쟁 때 이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고 한다.

## 황금문

좀 더 성벽을 타고 내려가면 닫혀진 문이 하나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열고 들어오신다는 황금문이다. 신약시대는 미문이라 불리기도 했다.(행 3장 참조)

성벽 동쪽의 가장 중간에 있으며 키드론 골짜기와 감람산을 마주보고 있다. 황금의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슬림들이 문

을 봉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문 앞에는 무슬림의 공동 묘지가 형성되어 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동쪽의 황금문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전설 때문에 무슬림들도, 유대인들도 황금문 앞에 무덤들을 만들었다. 성문 중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서 '미문'이라 불렀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Beautiful'이 아닌 'Golden'으로 번역하는 일이 4세기 경에 제롬의 성경 번역 과정에 있었다 한다. 라틴어 'Oraia(bautiful)'를 'Aurea' 즉 'Golden'으로 비슷하게 번역한 것이다.

이 황금문은 성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밑부분 반석은 BC 6세기 느헤미야 시대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술탄만 예루살렘 개축 때 유일하게 건축되지 않은 문으로 1541년 미래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완전 봉쇄하였다 한다. 지금까지 이 문으로 누구도 나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고 들어갈 수가 없다. 필자는 성전 산을 방문하면 꼭 미문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을 읽고 미문의 의미를 되새긴다. 메시아가 와야만 다시 이 문이 열릴 것이다.(겔44:1-3)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종려주일에 스가랴 14:3-5를 읽으면서 메시아 입성과 메시아 구원을 다시 기대하고 있다.

무슬림은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영혼이 이곳에 부활한다고 믿는다. 유대인들도 황금문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착한 사람은 남문(자비의 문)으로 들어가 하늘나라로 향하고, 악한 사람은 북문(후회의 문)을 통해 지옥을 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다른 전승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2개의 다리가 이 회개의 문에서부터 감람산으로 연결될 터인데 하나는 철로 만들어진 다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종이로 만든 다리라 한다. 아무리 철로 된 다리라도 죄를 지은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 한다.

## 분문

남쪽에는 분문(Dung Gate), 일명 쓰레기 문이 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한 문이다. 성문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유대지구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고대에 성 안의 분노와 변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쓰레기를 키드론 골짜기로 버리기 위해 만들었던 문이기에 오

물 문이라고 한다.(느3:14) 예레미야 39:4에는 '두담 샷문'이라고 불렀다.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서 실로암 문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1948년까지 작은 문이었으나 이스라엘 군에 의해 요르단 사람들이 자동차로 드나들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 건축가 아론슨에 의해 개축되면서 현재의 넓이로 확장하였다. 이 문으로는 통곡의 벽과 성전 산을 올라갈 수 있으며 고고학 정원이라는 오펜가든(비잔틴 시대 유적지)으로 갈 수 있고 성 밖으로는 다윗의 도시, 실로암 연못, 히스기야 터널, 아켈다마, 엔로겔, 키드론 골짜기 등으로 나간다.

## 시온 문

마지막으로 시온 문이 있다. 8개의 성문 중 남서쪽에 있는 성문으로서 1541년 술탄만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벽면과 기둥을 1968년 6일 전쟁 이후에 보수하였지만 1948년 독립전쟁이 총탄 자국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이 문 안으로는 아르메니아 구역을 통과해 유대인 구역으로 나갈 수 있고 문 밖으로는 시온 산으로 다윗왕의 무덤,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통곡교회, 마리아 영면교회, 기독교인들의 묘지, 힌놈의 골짜기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각각의 이름과 사연들을 안고 있는 7개의 문들을 통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있다. 성 안에는 약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다.

(계속)



분문



사자문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앞, (학문의 길) 앞, (십자가의 길)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6월 21일 개강

####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

#### 학위 수여자

B.A : 채수전 장로  
M.Div: 정지수 장로, 김재민 선교사

일시: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 채플실  
276 S.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부모여! 당신의 자녀를 코칭하라!

## 히즈대학교 HUPE 프로그램- 양은순 총장의 부모코칭 기술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3세기에는 한센병, 14세기에는 페스트, 15-16세기에는 매독, 19세기에는 콜레라, 20세기에는 암, 혹은 심장병, AIDS였다면 21세기는 정신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복이 불가능한 정신병의 위협은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우울증, ADHD 등의 증상은 편만해지고 있으며 각종 중독 현상도 심각한 상태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해 주어야 할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가장 확실한 정복은 예방이기 때문이다. 그 예방책이자 최근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HUP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HUPE 프로그램에서는 양은순 총장이 개발한 부모코칭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HUPE 프로그램이란?

HUPE는 HIS University Parenting Education의 약자로 히즈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전공 석사 과정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이다. "은혜로 힘을 주는 부모"라는 제목 아래 "지도자용"과 "학생용" 두 권으로 출판된 책을 사용해 10주 내지 15주 정도, 한 번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된다. 형편에 따라 주말에 인테시브로 하루 8시간씩 4일 정도에 마칠 수도 있다.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한 학문적으로 심도있는 내용이지만 경험주의 학습법을 도입하여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지루하기는 커녕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학습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HUPE 프로그램은 2012년 히즈대학교 총장 양은순 박사에 의해 개발된 이래 이 대학에서 가정사역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10여 명의 동문들이 미국, 한국, 태국, 호주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연령층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 효용성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고하는 10여 편의 논문들을 영어와 한글로 출판한 바 있다.

HUPE 프로그램은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시키고 자녀 양육의 이론과 실제를 제시해 주며 부모가 먼저 자신을 알고 자녀를 올바르게 알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을 주요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 HUPE 프로그램의 학습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각 단계별로 다른 과정을 이수하며 다른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동시대

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가치관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조화로운 인격의 소유자로 키우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속한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나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 HUPE 프로그램의 특징은?

HUPE 프로그램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모델임을 제시하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행동(Behavior), 정서(Emotion), 관계(Relation), 영성(Spirituality)이 통합된 전인적인 자녀 양육 방법(Holistic Approach to Parenting)을 강조하고 있다.

HUPE 프로그램은 성숙한 부모가 자녀에게 힘을 주기 위해 부모가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 3가지로서 공감적 이해(Empathy), 수용적 존중(Acceptance), 진솔함(Genuineness)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중심 심리치료(Humanistic Therapy)의 대가 칼 로저스(Carl Rogers)가 개발한 심리치료 이론을 근거로 세워진 인간 성장에 필요한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인 동시에 그러한 태도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적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HUPE 프로그램은 경험주의 학습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과거 교사 중심인 주입식 학습법과는 달리 학습자 중심으로 스

스로 배우고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능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강조한다. HUPE 프로그램은 부모의 의식과 가치관, 부모 양육 유형, 힘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한 기본 태도와 대화 기술, 부모코칭법, 자녀와 경계선, 자녀와 스트레스, 자녀와 중독문제, 자녀와 초문화 교육 등의 주제를 포함한 총 12과로 구성되어 있다.

### 양은순 총장의 부모코칭 기술

HUPE 프로그램 중 "양은순의 부모코칭(YCP: Yang's Coaching Parents)"은 행동주의를 기본원리로 개발된 '부모 자녀 상호 작용 치료 프로그램(PCIT: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을 양은순 총장이 재구성하여 개발한 부모코칭 기술이다. PCIT는 파괴적인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위한 행동주의에 바탕을 둔 가족치료 프로그램이다.(Brestan & Eyberg 1998; Gallagher 2003; Harwood & Eyberg 2006:335, 전혜성 2013:19, 남인숙 2017:24) 연구 보고에 의하면 PCIT를 통한 문제 아동의 행동 치료 효과는 85%라는 통계가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행동주의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PCIT의 장점을 살리되 행동주의를 배격하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인간 중심 심리치료의 이론을 접목시켜 재구성한 것이 "양은순의 부모코칭(YCP)" 기술이다.

어린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삶과 성장에 중요한 일상이기에 부모가 하루 일정한 시간 동안 자녀와 더불어 놀이를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을

준다면 자녀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놀이치료는 훈련된 치료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1시간 정도 놀이를 통해 어린이를 치료해 주는 것이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도 어린이는 치료사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나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양은순의 부모코칭에서는 치료사가 직접 어린이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코칭을 통해 부모가 놀이치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킴으로 지속적이고도 확실한 치료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연령 제한 없이 놀이 치료의 기본 원리와 기술을 익히도록 개발된 양은순의 부모코칭 기술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갖도록 해 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부모가 자녀를 코칭한다'는 것은 자녀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지지해 주고 공감 반응을 보이며 수용해 주고 진솔한 대화를 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현숙 2006; 김주희 2011; 양은순 2012; 전혜성 2013; 남인숙 2017:24-30)

HUPE 프로그램이 자체 스펙트럼 장애 자녀와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 논문을 쓴 전혜성은 양은순의 부모코칭 기술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코칭의 필수기술 중 움직임 설명은 자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주도 활동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물

에 대한 관찰력을 비롯하여 어휘력과 주의 집중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언급의 경우, 부모가 인정하고 칭찬한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은 반복되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자녀의 자기 평가가 향상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표현을 재연해 주는 반응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해줌으로써 자녀의 언어능력을 향상시켜 주게 된다. 무조건적, 긍정적인 부모의 공감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 자녀 내면의 힘이 강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받아들이는 수용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길러 줄 수 있다. 부모의 진솔함을 통해 자녀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행동에 대한 신뢰 및 일관성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관심과 통찰을 통해 자녀를 발함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행동이 사라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녀의 긍정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지 기술을 통해서 부모가 부정적인 언급을 삼감으로써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쾌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녀의 자기평가에 대한 저하와 비판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숨겨진 명령이 내포된 질문이나 직접적인 명령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행복한 가정으로 세상에 영향을

양은순 총장은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히즈대학교를 통해 HUP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많은 부모들과 나누어,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경험하도록 돕길 바란다.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세상이라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 히즈대학교(HIS University)

주소: 1245 West 6th Street  
Corona, CA 92882  
전화: 951-372-8080  
웹사이트: www.hisuniversity.org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i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진정한 행복 목회 하고 있어요”

##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9) - 주님의교회 오정택 목사

캘리포니아의 싱그러운 햇살 아래서 미소가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한 오정택 목사를 만났다. 동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하는 오목사는 ‘사람 좋은 목사’다. 오목사는 화내는 법이 없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법이 거의 없다. 그는 많은 목회자 모임에서 총무다. 소위 총무 주특기다.

기자가 오정택 목사와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가 인기 좋은 총무 목사가 된 이유를 알았다. 대학 내내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을 좋게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워낙 좋은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더 그럽고 여유있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 참 좋았다. 한 잔의 차와 함께 나누는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비전을 지면에 담는다.

### 어머니 서원기도가 고백적 소명으로

오정택 목사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 받으며 자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소년 오정택은 초등학교부터 장래희망란에 목사라고 적었다. 어머니로부터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이다. 아들을 얻기 위해 드린 새벽제단에서 뜨거운 서원기도 후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다. 오정택 어린이는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린이 예배 후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 물론 어른들을 흉내 내는 것이었지만 오정택 어린이는 목사 연습 중이었다.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오정택 학생은 판 꿈을 끈다. 신학교에 진학하는 선배들 모습을 보니 대부분 예비교사에 낙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신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의대를 지망한다. 오정택의 의대 지망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목사 후보생은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의대 입학 시험에서 낙방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느껴지기도 했다. 재수 준비를 하며 고민이 많았다. 마침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 보니 강문호 목사님이 의대 낙방 후 신학교에 진학한 것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강문호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 상담 후 오정택은 신학교 진학에 확신을 얻었다. 재수생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그때 맡았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은 큰 보람이었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축복이었다. 특히, 여름성경학교에서 세족식은 감동이었다. 세족식 후 개구쟁이들이 완전히 변화 되었다. 개구쟁이들이 예배와 전도의 모범을 보였다. 지금은 그들이 목사가 되고 전문인이 되어 교제하며 협력하고 있다.

### 하나님의 선물, 부르심의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학내사태 같은 문제들을 목도하면서 신학교와 신학에 대해 크게 갈등한다.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신학생 오정택을 여러 사건과 경험으로 붙잡아 주셨다. 특히 군목 후보생 시험 합격은 확신과 기쁨을 준 큰 선물이었다.

한국의 20대 남자라면 누구나 갖는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축복이었다. 모범 신학생으로 돌아온 오정택은 착실하게 신학 수업을 받고 목회 실습을 했다. 당시 감리교회는 군종목사로 입대 하더라도 단독 목회 경험이 있어야 목사 안수가 가능했다. 오정택 전도사는 지하 전세를 얻어서 3년간 개척교회를 했다. 총각 전도사의 목회 현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전도되었다. 초년 목회에서 목회 결실을 경험하며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건강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 공군 군종목사와 광림교회 부목사

공군 군종목사로 보낸 세월은 행복 이상이었다. 보람과 기쁨 풍성한 시간들이었다. 물론 아픔도 있었고 불편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날들은 긍지와 보람

으로 남아 있다. 특히 공군 교육사령부 교회에서 훈련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신시켜 세례를 주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행복한 추억이다.

군종목사로 전역하면서 광림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광림 교회에서 대학부와 청년부 지도 목사로 섬기게 된 것은 오목사에게 큰 축복이었다. 강남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젊은이 예배를 도입하여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청년 부흥 시대를 경험한 것이다.

### 유학과 이민교회 부교역자

젊은이들을 섬기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많은 도전도 받았다. 오목사는 좀 더 준비된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좀 더 깊은 인간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교육학적인 접근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꼈다. 오목사는 돌파구로 유학을 택했다.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유학생 생활은 보람된 시간이었다. 나름대로 교육목회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좋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아직도 좋은 관계를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동역하고 있다.

오목사에게 담임목회의 기회가 왔다.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게 된 것이다. 11년 6개월의 목회에 은혜가 많았다. 여기서 그는 이민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다. 찬양예배를 도입하고, 제자훈련과 영어권 예배 활성화 그리고 한국학교를 통한 지역 봉사과 세계 선교 등 균형잡힌 사역들을 통해서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사임을 하게 됐다. 사임 과정은 아팠다. 갈등들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다.

### 주님의교회 개척과 행복한 목회

교회를 사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이민 목회를 포기하고 한국을 가려 했다. 한국행 결심 후 집을 싸는데 분쟁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오목사를 찾아 왔다. 그들이 교회개척을 제안했고 오목사는 고심 끝에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주님의교회’를 개척했다. 힘든



오정택 목사

과정이었지만 은혜도 컸다. 교회를 개척하며 드린 기도는 “주가 주신 되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다. 오목사는 목회적 부담이나 목회적 성취도 주께 다 맡기고 목회한다. 진정한 행복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비전과 기도의 제복

오목사는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복들이 있다. 오랜 세월 품고 기도해왔던 숙성된 기도다. 첫째 기도는 행복한 목회다.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도한다. 주변에 행복하지 못한 교회, 행복하지 못한 성도, 행복하지 못한 목회자가 너무 많다. 오목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를 세워 행복한 목사로 살기를 기도한다.

둘째 기도는 예배자 세우기다. 또 오정택 목사는 예배자를 세우는 목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오목사는 바른 예배를 오래 고민해 왔다. 군종목사, 광림교회 부목사, 그리고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담임목사 시절도 늘 예배 갱신을 도모

하며 기도했다. 오목사는 ‘신앙인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시공을 초월한 참 예배자를 세우는 목회에 힘을 모은다.

셋째 기도는 선교다. 그는 C국 전문 선교 공동체 ‘비전 50’의 총무다. 그는 2050년까지 상당한 선교적 교두보가 마련되어 C국을 통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협력하는 선후배 목회자들과 종종 모여 기도하며 시간, 마음, 그리고 물질을 모은다. 귀한 후원의 손길이 있어 감사한 일이지만 더 많은 후원과 협력이 필요해서 더욱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평생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목사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더욱 더 신실하고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꿈과 비전을 고백하는 그의 눈빛이 빛났다. 파스한 미소에 담긴 그의 결의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주님의교회와 더불어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오정택 목사의 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강태광 편집위원

#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사,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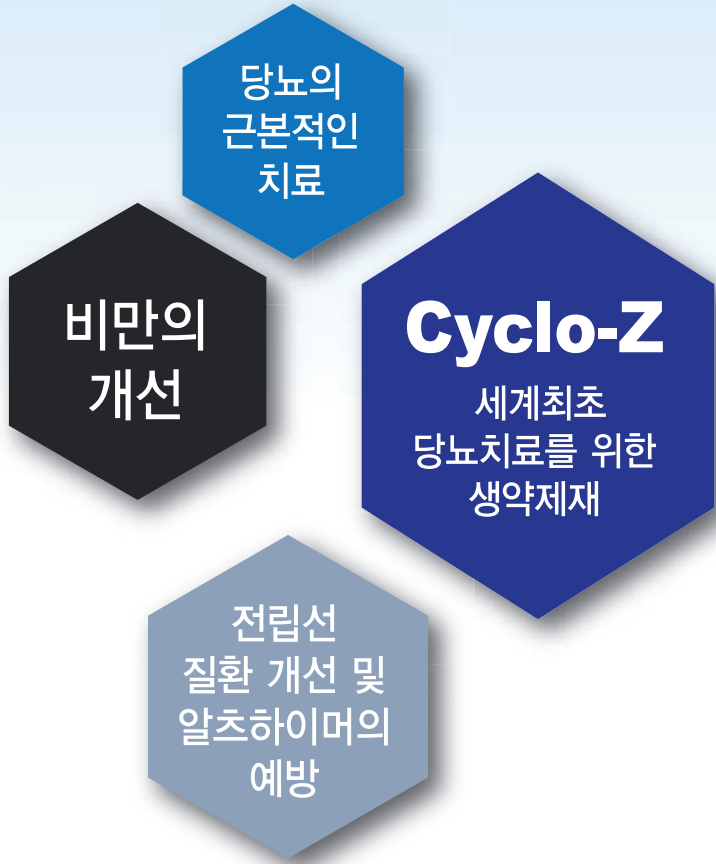


서철원 교수

- I. 신학서론\_ 믿음으로 신학할 304면 / 22,000원
- II. 하나님론\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 III. 인간론\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 IV. 그리스도론\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 V. 구원론\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 VI. 교회론\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 VII. 종말론\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 1세트(전7권) 154,000원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